

국제 및 아시아 영재학회의 최근동향*

전 경 원

(광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目 次>

- I. 서론
- II. 국제영재학회(World Council for the Gifted/Talented)
- III. 아시아-태평양 영재학회
 - 1. 아시아 영재학회
 - 2. 대만의 영재교육
- IV. 결론

I. 序 論

요즈음 매스미디어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열광하고 성원하였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의 승전보와 종합 순위 7위라는 성과가 곧 우리나라 국력의 순위인양 흔히들 착각하기 쉬운데, 얼마전 발사한 우리별 1호가 구소련이 1957년 스푸트니크 호를 발사한 이래 35년 만에 세계에서 22번째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은 결코 7위 수준이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의 발전정도는 국가 발전의 정도와 정비례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선진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에 관한 연구와 실천을 꾸준히 해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에 관한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 전세계 다국적 기업은 국경을 넘어 배타적 블록을 쌓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블록까지 넘어가 약한 자원을 흡수하고 강한 경쟁자라는 손을 잡는 생존투쟁을 전개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

* 본 글은 본 학회 주최의 학술세미나('92. 10. 16)에서 발표된 것임.

여야 할 사실은 두뇌들까지 동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래의 지배자는 자원도 자본도 무기도 아닌 두뇌”라는 Toeffler(1980)의 말을 구태여 빌지 않더라도 영재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영재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의 첨단 산업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요청과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계발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요청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존중하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인간답게 살아나가게 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권리에 대한 보상이다. 개개인에게는 그의 능력에 알맞는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영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논의되어 왔고, 그에 대한 찬반론이 대두되어 왔다. 물론 어느 문화에서도 보수적인 그룹에서는 영재교육을 전인교육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학자들이 영재교육이 평등사상에 위배되느니, 위화감을 조성하느니, 민주주의 교육과 거리가 멀다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반론을 펴기도 했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영재교육학회는 영재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제고와 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한 장으로 큰 몫을 해왔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영재교육과 관련된 학회가 개최되어 영재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1994년 제3차 아시아-태평양 영재학회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앞서 1975년 발족된 국제 영재학회와 1990년에 결성된 아시아 태평양 영재학회의 현황 및 최근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에 대한 향후 발전을 위해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II. 국제영재학회(World Council for the Gifted/Talented)

그동안 국제영재학회가 영재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하는데 주역할을 해온지 20여년이 되간다. 국제영재학회는 미국,

캐나다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의 학회이며 수십개국이 각국의 영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국제영재학회의 활동 내용은 학회 회장인 Norah Maier가 1990년 VINNEA 정상회담에서 “국제영재학회의 조직과 계획”에 대해서 아래 도표1과 같이 발표했고 (Norah, 1990), 아울러 “국제적인 도전과 추천사”에서 국제영재학회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도전 1 : 교사교육과 발전은 다양한 능력의 성장과 적절한 진단을 제공하는데 최우선 순위가 되어 한다.

도전 2 : 영재아에 관한 다문화적 (Multi-Cultural) 이고 협동적인 연구는 공통적인 국제적 관심사이다.

도전 3 : 영재에 관한 국제적인 정보의 보급과 대회의 체계적인 계획은 국제적인 조직의 기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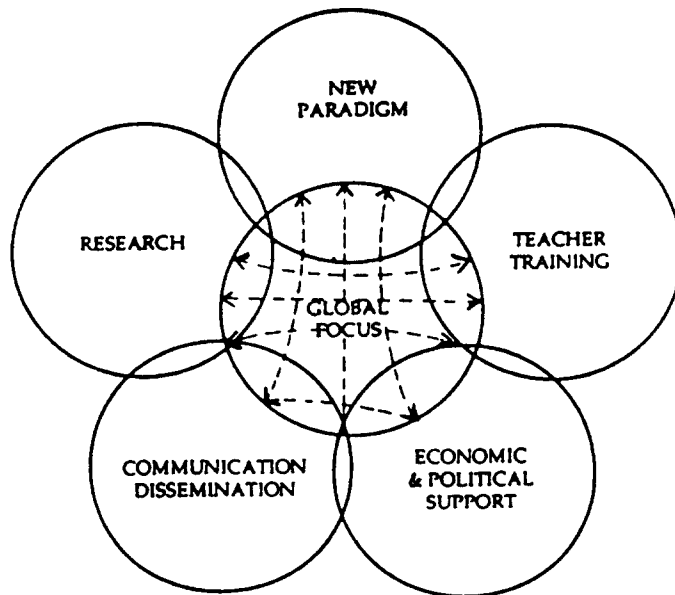
도전 4 : 탐색, 교수, 자료과 기술적인 지원 및 적용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도전 5 :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후원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인 정책 수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도전 6 : 국제적인 교육은 조직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국제적인 초점을 반영한다.

도표 1 국제영재학회의 조직과 계획

WORLD COUNCIL ORGANIZATION AND PLANNING



국제영재학회는 매 2년마다 개최가 되어왔고, 1975년 영국 런던에서 제 1차 국제영재학회가 열린 이래 국제영재학회의 개최국 및 개최 연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1995년 11차 국제영재학회는 홍콩으로 결정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도표 2 : 국제영재 학회 현황

	개최연도	개 최 국	개 최 도 시
1 차	1975	영 국	런던
2 차	1977	미 국	샌프란시스코
3 차	1979	이스라엘	예루살렘
4 차	1981	캐 나 다	몬트리올
5 차	1983	필 립 핀	마닐라
6 차	1985	독 일	함부르크
7 차	1987	미 국	슬트레이크 시티
8 차	1989	호 주	시드니
9 차	1991	네델란드	헤이그
10 차	1993	캐 나 다	토론토

도표2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에서는 1977년과 1987년에 2번 개최가 되었고, 87년에는 지금까지 학회중에서 호응도가 제일 높아서 학회 참가자와 발표 논문수도 많았다.

1975년 이래 1991년에 걸쳐 국제영재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록한 학술회의 논문집(Proceedings)에 게재된 논문은 대략 7가지의 주제로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Heller, 1992) :

- 1) 학습과 지각(Learning and Perception)
- 2) 영재아/재능아의 판별(Identification of gifted/talented)
- 3) 발달(Development)
- 4) 영재아의 개인적인 특성(Persona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gifted)
- 5) 신체적, 정신적인 조건(Physical and mental conditions)
- 6) 교육학적이고 교수학적인 과정 및 프로그램

(Educational & Instructional Processes, Programming, etc)

7) 사회적인 문맥과 영향(Social Context and Social Influences)

Heller(1992)가 국제학회의 1975년 부터 1991년 까지의 Proceeding과 1980년 부터 1991년 까지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 학술지에 게재 되었던 논문의 내용을 분석(content analysis)한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여기서 주요학술지란 Gifted Child Quarterly, Roeper Review(GCQ),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JEG), Gifted Educational International(GEI), Roeper Review(RR), Psychology in the Schools, th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를 일컫는다.)

1. 영재와 재능의 영역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문헌들은 영재교육의 실제적인 문제들과 이와 연관된 질문에 주요한 초점을 두고 있다.

JEG와 GCQ의 반 이상의 논문과 3분의 2이상의 GEI와 RR과 국제영재학회의 학술회의논문집(Proceedings)에 수록된 논문이 영재아/재능아의 교육, 교수(instruction), 프로그램 영역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Heller, 1992). 반면에 기초적인 연구, 이론적인 연구 및 혁신적인 접근을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응용학문과 실제적인 연구가 문헌에서 너무 과다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Gallagher(1986)와 Feldhusen(1990) 학자가 해왔고 이론과 실재를 조화롭게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2. 영재성과 재능성 영역의 기초와 응용 연구는 간학문적인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에 의해서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접근은 영재성과 재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도록 이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는 학교 안밖에서 영재성과 재능을 개발하는 것과 영재를 판별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영재성에 관한 간학문적 연구는 교육학자와 심리학자간에 출발되어 영재교육과 다른 학문간의 고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영재학회 프로그램에 간학문적인 심포지움이나 월사를 다양하게 포함시켜 영재교육이 관련된

중요한 연구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비교문화 연구는 영재/재능의 연구에 관한 국제적인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파생된 원리를 검증하는 본질적인 연구도 강조를 해야 한다. 성(sex)과 문화적인 사회화의 영향과 관련된 개인적인 차이의 비교문화 연구는 인성적인 차이와 발달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비교문화적인 연구는 발달이론과 사회화 이론의 가설에 대한 일반적인 타당화를 검증하기 위한 기회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문화나 하위문화와 개인적인 능력의 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흔하지 않고(Haensly, Reynolds, & Nash, 1986 : Csikszentmihalyi, 1988) 영재성의 창의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Hany, E. A., & Heller, K. A., 1992)고 알려져 왔다.

Ⅲ. 아시아 - 태평양 영재학회

1. 아시아 영재학회

1) 아시아 영재학회 발족

아시아 - 태평양 영재학회는 국제영재학회 산하 기구로서 1990년 결성되었고, 이러한 의견의 일치를 본것은 1989년 호주에서 제8차 국제영재학회 개최되었던 시드니에서 였다. 시드니회의에서 국제영재학회의 상임위원인 필립판의 Roldon 박사와 대만의 Wu 박사를 주축으로 아시아 지역의 영재학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양의 문화는 서양의 그것과 다르고 즉, 영재성 또는 재능이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아시아 지역권의 영재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는데 의의를 두었다.

지난 수십년간 영재성(Giftedness)과 재능에 관한 개념은 문헌연구에서 특징지어져 왔던 것처럼 많이 변화되어 왔다. 10-15년 전 만해도 영재성은 일차원적인 요인이라고 보아져 왔고 IQ측정과 상응하는 것이라고 보아져 왔으나, 최근의 모델들은 다차원적인 또는 다면적인 지능의 심리측정적인 개념(예, Gardner(1983)의 복합지능) 또는 정보이론과 인지심리(예, Sternberg의 지능의 3차원적 모델)

접근에 기초를 두고 있다. Gardner (1983)는 지능을 7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 언어, 이론·수학, 공간, 신체운동, 대인관계, 자신에 대한 관리, 음악적인 기능 - 지능을 단일 개념에서 다양한 재능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이렇게 복합적 지능 또는 복합적 재능이란 개념은 문화와 가치관 및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영재교육의 초점은 미국이나 유럽 지역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했다.

아시아-태평양 영재학회 창립자는 대만의 우(Wu) 박사, 필립핀의 롤돈(Roldon) 박사, 한국의 전경원 박사 등 5개국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그 결과 1990년 필립핀의 마닐라에서 제1차 영재학회가 개최되어 한국의 영재교육 전문가는 물론 영재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아울러 아시아 영재학회의 목표 7가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1) 영재교육에 관한 아이디어, 연구결과 및 전문가의 교환
- (2)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재에 관한 지역적 연구를 고무
- (3) 영재교육과 관련된 교사교육과 교사훈련을 촉진
- (4) 영재아의 부모교육 월샵 촉진
- (5) 학생교환 및 교사교환 프로그램 개발
- (6) 정부와 시민차원에서의 영재교육에 대한 후원을 얻기
- (7) 미디어를 통한 영재교육 후원을 얻기

초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국한시켰던 이유로 '동남아시아 영재학회'로 명명하였다가, 2차학회때에 아시아 전지역을 대상으로 영재학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시아 영재학회"라고 했고, 3차때는 아시아는 물론 뉴질랜드와 호주까지 포함시켜 "아시아 태평양 영재학회"라고 개칭되어 앞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를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1차 영재학회는 필립핀의 마닐라에서 1990년 8월 16일 부터 8월 18일 3일간 진행되었고, 2차 영재학회는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1992년 7월 24일 부터 27일 까지 4일 동안 진행되었다. 3차 학회는 1994년 한국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되었다.

현재 공식적인 아시아 지역의 영재학회의 명칭은 "아시아-태평양 영재학회"(The Asia-Pacific Federation of the World Council for Gifted and Talented Children)이며, 4명의 상임위원(필립핀의 Roldon 박사, 대만의 Wu

박사, 한국의 전경원 박사, 호주의 맥켄)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국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모여 비교문화 연구진행 결과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영재학회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와 영재성간의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하는데 주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차 아시아 영재학회 기간중 결의 된 사항중의 하나가 7개의 특별한 문제를 분석, 조사,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영역을 정의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문화 연구에 착수하기로 동의했다.

- (1)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협동적인 연구
- (2) 각국에서의 교사훈련
- (3) 부모의 역할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 (4) 각국의 영재 양육 방법과 영재의 정의에 관한 소개
- (5) 경쟁심에 관한 비교연구
- (6) 미성취 영재아의 성공사례 연구
- (7) 각국의 영재 프로파일에 관한 정보교환

2) 아시아 영재학회 주제 및 주요 주제

제1차 동남아시아 영재학회의 주제는 “오늘날의 영재아, 21세기의 영재인”(GIFTED CHILDREN AND YOUTH TODAY GIFTED ADULTS OF THE 21ST CENTURY)이었고 주요 주제는 14종류로 다음과 같다: 1) 판별 절차; 2) 프로그램 전략; 3) 교육과정 고안; 4) 교수전략; 5) 자료개발; 6) 연구와 측정; 7) 지도와 상담; 8) 과학과 기술/컴퓨터 과학; 9) 시각예술; 10) 학교외 프로그램 (NON-SCHOOL PROGRAM); 11) 지역사회 주창/대중인식; 12) 영재교육에 관한 국가정책 수립; 13) 상업, 산업, 공적인 사업에서의 영재성 개발; 14) 영재아의 부모교육.

필립핀은 1983년 5차 국제영재학회가 개최되었던 국가로서 그 당시 학회의 주제를 “영재아, 영재청소년, 영재인: 사회적인 관점과 문화”(Gifted and talented children, youth, and adults: Their social perspectives and culture)로 설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영재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역점을 두어야 할 주요한 두가지 요인은 “사회와 문화”임을 강조했다. 즉, 영재성이란 문화와 사회적인 맥락에서 정의되어야 하고 그 사회와 문화안에서 가치를 부여받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적·행정적으로 적

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1차 아시아 영재학회에 대한 학회발표 논문집(Proceedings)에서는 14가지에 대한 소 주제를 크게 3가지로 대별해서 출판했다: 첫번째 범주는 “일반적인 견해에 관한 것으로 4편, 간학문적인 학교 체제에 관한 것이 14편, 영재성을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사회적인 참여가 13편으로 총 31편의 선정된 논문이 게재가 되었다.

대만에서 개최되었던 제 2차 영재학회의 주제는 “영재아교육” (Growing up gifted and talented)으로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영재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을 모토로 삼았다. 기조연설에서 Passow 교수가 영재성이란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전체 학습 환경적 구조속에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영재아는 하루에 몇 시간만 영재가 아니고 24시간 영재이므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학교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 2차 아시아 영재학회의 주제는 “발전하는 영재/재능아” (GROWING UP GIFTED & TALENTED)로서 주요주제는 16가지로 나누어졌다.

1.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재교육 강조
2.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재능의 개발
3. 창의성 개발
4. 영재아를 위한 교육과정
5. 미성취영재를 위한 상담
6. 교육행정과 정책
7. 교사훈련과 전문적인 발달
8.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평가
9. 영재에 대한 비교문화적인(Cross-Cultural) 접근
10. 영재를 위한 지도자적인 능력 훈련
11. 영재의 정의적인/도덕적인 교육
12. 영재의 인지 발달과 학습
13. 영재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대화
14. 영재 판별과 측정의 쟁점
15. 영재의 직업교육
16. 장애영재

위에서 나타났듯이 문화와 영재성 사이의 관계는 2차 아시아 영재학회에 관한 주제로서 2번이나 부각되었다. 미래의 국제적인 학회에서 이러한 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험과 정보의 국제적인 교환은 문화간의 연구는 과학적인 통찰력을 함양하는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영재성/재능의 영역에 관한 편견을 감소시켜 나가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학회에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유럽, 미국 등지에서 873명이 참석했고, 발표 형태도 다양하여 심포지움, 논문발표, 워샵, 포스터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특성을 살려 교사와 연구자들의 흥미 연구 분야와 욕구에 알맞게 참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기조 연설자 및 사전 워샵(Pre workshop)이나 사후 워샵(Post workshop)등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하여 국제학회를 방불케 하였다.

2. 대만의 영재교육

대만은 대미 무역에서 해마다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제 1의 외환보유국이 되어 있다. 사회, 경제, 문화 각 방면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영재교육에서 그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만은 영재학생이 대부분의 시간을 정규학급에서 수업을 하도록하여 평재들과 어울리게 하고 특수반을 설치하여 하루에 일정 시간동안 자료실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가 고안되어 있다. 영재아들을 일반아동과 격리시켜 영재들 끼리만 수업을 받는 특수학교 제도는 없고, 대부분이 특수반 제도로써 메인스트리밍 (대부분의 시간을 일반아동과 함께 보내는 프로그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인 영재를 위한 국민학교의 특수반은 199개, 중학교에서는 73개, 고등학교에서는 30여개의 특수반이 있어 780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고, 예체능 계통(음악, 예술, 무용, 체육)의 영재아는 국민학교에서 147개, 중학교 수준에서 104개의 영재교육 특수반이, 고등학교의 수준에서 182개의 특수반이 운영되고 있어, 한국과 같이 과학고등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1964년 타이페이 Fu Hsin 학교와 Yang Ming 국민학교에 최초로 영재/재능아를 위한 국민학교를 설립하였고, 1971년에는 문교부에서 Ta An 고등학교와 Chin Hua 고등학교에 “영재아와 재능아를 위한 교육적 풍부화” 프로그램을 시작

했다. 이러한 실험적인 영재교육은 음악적 재능아를 위한 교육에서 예능반, 스포츠반, 공작반 등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1973년에는 “국민학교 영재들을 위한 실험적 연구”를 타이완 전역에서 30여개의 특수반을 중심으로 대규모 연구를 시도했다. 1979년에는 고등학교에서 실험연구가 시작되었고, 1982년에는 비로서 과학과 수학에서의 영재교육을 위한 지침서가 발간되었다. 마침내 198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영재교육을 넣어서 장족의 발전을 한 나라로서 우리로서는 본받을 점이 많이 있는 국가이다.

IV. 결 론

우리나라에서 1969년부터는 중학교에서 1973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학력의 하향 평준화” 현상으로 교육의 질적인 저하를 나타내고 이어 교육의 수월성 문제가 제기되어,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영재교육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1991년 한국과학영재학회가 결성되어 과학영재교육 위주로 학회활동이 되고 있으나 선진국이나 영재교육이 발달된 국가에 비해 “영재학회” 조직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1981년도 구미에 시범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된 이래 11개 과학고등학교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올림픽아드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하는 학생들은 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영재를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체계적인 교사연수 및 부모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서 참다운 영재교육이 부재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영재교육의 한 형태인 우주소년단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과학영재들이 과학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선진국가나 소련등에 비해서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영재교육 학회를 유치하여 영재교육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고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1992년 7월 26일 2차 아시아 - 태평양 영재학회의 폐막식에서 1994년 한국이 제 3차 아시아 - 태평양 영재학회의 개최지로 결정된 것에 관한 공식적인 선언이 있었고, 한국은 앞으로 2년후의 영재학회를 계기로 영재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인식고양이라는 차원에서 분발해야 겠다. 1994년 제3차 영재학회에

서는 기존의 학회가 교수와 연구진을 중심으로 활동을 마련하여 학계의 권위자는 물론 영재와 그 부모들의 참석까지를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 3차 아시아-태평양 영재학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재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1. 창의성개발을 위한 판별도구의 개발 및 프로그램 모형 개발
2. 아시아 태평양의 문화적인 맥락속에서 영재성/재능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비교문화적인 연구를 추진
3. 체계적인 교사교육과 교사훈련 방법을 강구
4. 지역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영재성/재능의 개발 및 이에 필요한 판별방법을 개발
5.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실시
6. 영재아의 상담 및 지도를 위한 적절한 모형을 제시
7. 영재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보급

미약한 기초과학 분야와 낙후한 기술발전의 도야를 위해 영재교육의 도입이 시급하다. 영재교육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기술개발의 주요한 역할을 할 미래의 주역인 영재를 효율적으로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영재들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많은 이혼을 남기는 것을 보면 영재교육은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각국에서 영재교육 학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 동기는 학회를 통하여 영재교육에 관한 국민의 의식 제고 및 영재교육 제반에 걸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데 있다. 필리핀의 경우 1983년 5차 국제영재학회를 유치하고, 1990년 제1차 아시아 영재학회를 유치하므로써 영재교육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아시아-태평양 영재학회를 유치함으로써 영재교육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영재교육을 시대적이고 국가적인 요청으로 영재교육을 받아들여, 지역사회인은 물론 정책수립자와 행정입안자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행정적, 재정적 후원을 얻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 Csikszentmihalyi, M. (1988). Society, culture and person : a systems view of creativity. In R.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pp. 325-33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ldhusen, J.F. (1989). Synthesis of research on gifted youth. Educational Leadership, 46, 6-11.
- Gallagher, J. (1986). A proposed federal role : Education of gifted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30, 43-46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New York : Basic Books.
- Haensly, P., Reynolds, C.R., & Nash, W.R. (1986). Giftedness : coalescence, context, conflict and commitment, In R.J. Sternberg & J.E.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pp. 128-148).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y, E. A., & Heller, K. A. (1992). Entwicklung Kreativen Denkens im Kultur Kontext, In Mandl, M., Dreher, & H.J. Kornadt(Eds.), Kultur-Entwicklung-Denken (culture-development-thinking). Gottingen : Hogrefe, in press.
- Heller, K. A. (1992).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of research into giftedness. A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Asian-Pacific conference on giftedness.
- Norah, M. (1990). Vienna Summit Report : Quality and equality in the development of human potential. A book of proceeding for the 1st Southeast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Giftedness.
- Toeffler, A. (1980). The third wave. New york : bantam.
- Vockell, E.L., & Conard F. (1992). Sources of information in gifted education literature. Gifted Child Quarterly, 36(1), 17-18.
- Vockell, E.L., & Asher, W. (1972). Sources of information in gifted education literature ,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6, 181-182.

Vockell, E. L., & Asher, W. (1989). Sources of information in gifted education literatu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58, 63-67.